

# 전남 임금근로자 비중 전국서 가장 낮아

## 광주, 맞벌이 가구 43% 광역시중 1위

## 진도, 육아·가사 비경제활동 가장 많아

전남이 전국에서 임금근로자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꼽혔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진도는 육아와 가사, 구례는 나이가 들어서 쉬는 인구의 비중이 높았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3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전남지역 취업자수는 93만4000명으로 이중 임금근로자(49만6000명)가 차지하는 비율은 53.1%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특히 임금근로자 비중은 신안(16.0%), 함평(26.3%), 진도(27.8%), 장흥(28.6%) 등 주로 군지역에서 낮았고 목포시(72.6%), 여주시(71.4%), 순천시(64.4%) 등 시지역에서는 높았다.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156개 시·군 가운데 진도는 '육아·가사'를 이유로 쉬는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62.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해남도 58.0%로 전국에서 네번째를 기록했다.

구례는 '연로'를 이유로 쉬는 55세 이상 고령층의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35.4%로 전북 임실(43.2%)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다.

광주지역은 유배우(배우자가 있는 가구) 가구 중 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3.0%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았으며 전남은 56.2%로 제주(58.6%)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다.

전남은 농업이업이, 광주는 도소매·숙박음식업이 발달해 맞벌이 가구 비중이 다른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영암은 근무지 기준 고용률(105.3%)과 거주지 기준 고용률(64.9%) 차이가 40.4%포인트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장성(89.4%, 65.0%)도 24.4%포인트나 차이가 나면서 전국 5번째를 기록했다.

해당 지역에 직장을 둔 취업자 수가 지역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인구보다 많은 경우 나타나는 근무지 기준 고용률이 높다.

영암의 경우 인구는 적은 반면 대불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대형농공단지가 있어 주변 지역에서 통근하는 취업자수가 많았다.

나주와 신안의 경우 거주지 기준 고용률이 76개 시와 80개 군지역에서 각각 두번째로 높았다. 나주는 67.5%로 제주 서귀포시(71.8%)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고 신안은 75.4%로 경북의성(76.2%)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함평과 진도는 취업자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4.5%와 5.3%로 전국 하위지역에 해당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폐점시간 1시간 늦추니 매출이 쑥~욱

## 롯데백화점 광주점 크리스마스시즌 7% 늘어

## 계단벽면 활용 작품 전시로 고객 집객 효과도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크리스마스 기간동안 영업시간을 1시간 더 늘려 매출 상승효과를 톡톡히 봤다. 2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던 지난 21~24일까지 한시적으로 1시간 연장영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백화점 전체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늘었다.

특히 머플러(32%), 시계(24%), 핸드백·지갑(13%) 등 잡화 상품군을 비롯해 아웃도어(30%), 아동·유아(26%), 남성정장(20%) 등 의류 부문 매출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또 크리스마스 특수 상품군인 와인(21%)과 케이크(16%), 향초(18%) 등도 잘 팔렸다.

백화점 측은 "연말 선물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퇴근길 실속구매자를 잡기 위해 폐점시간을 연장

하면서 매출 상승 효과를 본 것 같다"며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백화점에서도 '덜이 판매'가 큰 인기를 끌면서 백화점 '피크타임'이 오후 4~6시에서 7시 이후로 바뀌면서 백화점 식품관 매출도 전년보다 25%나 급증했다"고 말했다.

롯데는 또 계단 등 평소 사용하지 않았던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해 집객효과도 높이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2·4·8층 계단 벽면에 평화 패러디와 착시 조형물을 주제로 한 '트리아트전' 작품을 전시 중이다. 그 결과 하루 평균 10명도 찾지 않았던 공간이 이제는 하루 평균 200명 이상 찾는 백화점 명소가 거듭나고 있다는 것이 백화점 측 설명이다.

백화점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유통업체가 전반이 실적부진에 시



롯데백화점 광주점 계단 벽면 트리아트전을 찾은 고객들.

달리고 있지만 다양한 마케팅으로 불황 속에서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며 "백화점의 숨은 공간에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내는 등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조선대-광주협동조합 연구 사회적경제연구포럼 창립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이 출범한다.

조선대 경영대학원(원장 전의천)은 (사)광주협동조합연구소와 공동으로 27일 오후 2시 경영대학원 8층 A세미나실에서 '사회적경제연구포럼'을 창립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창립선언문에서 "사회 양극화, 저성장·고실업, 공동체 해체 등으로 불신과 대립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며 "자본주의 시장 경제 대안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자"고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포럼 창립식에 이어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대학협동조합 연대 필요성 등에 대한 토론과 모의 협동조합 설립 경진대회 등이 열린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 수출 유공자들

제49회 무역의 날 광주지역 수출탑과 유공자 포상 전수식이 26일 광주 리마디플라자 호텔에서 강은태 광주시장을 비롯해 무역업계, 수출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 광주지역 수출탑 수상업체는 1억달러 수출탑을 수상한 화천기공과 7000만달러탑을 받은 동희하이테크 등 모두 34개사다.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제공)

## 효성그룹 이웃사랑 성금 10억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

효성(회장 조석래·사진)은 26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10억원을 기탁했다.

노재봉 지원본부장은 "기업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책임이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효성은 연말 이웃사랑 성금 외에 매년 회사와 전체 임직원이 참

여하는 모금활동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봉사 뿐 아니라 구미·안양·울산·창원 등 지방 사업장별로 김장 김치와 연탄 전달, 사랑의 헌혈행사 등을 벌이고 있다.

최근 '함께 일하는 재단'을 통해 사회적 기업 9곳에 경영컨설팅을 제공해 지속성장을 돕는 등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효성은 특히 내년부터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효성 사회봉사단을 중심으로,



코시스템 창조) 도입,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한 1시간 활동, 미래를 위한 환경보호 활동 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중흥건설 주택 9614가구 공급 전국 3위

호남 대표 주택건설사인 중흥건설(대표 정찬선)이 올해 전국에 9614가구를 공급, 시공실적 3위를 기록했다.

중흥건설은 올해 초 세종특별자치시에 5개 필지 4213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2개 필지 1592가구, 순천시 신대지구 1842가구, 김해시 진영지구 1176가구, 창원시 현동지구 555가구, 천안시 백석지구 236가구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총 9614가구를 공급했다. 이는 자체 사업으로는 국내 건설사 중 최대 공급량이며, 시공 실적으로는 대우건설과 현시에 이어 3위였다.

특히 광주 첨단2지구와 김해 진영2지구 중흥S-클래스는 특화된 테마형 물놀이 놀이터를 제공하고, 광주 하남2지구와 순천 신대지구 중흥S-클

래스 메가타운에는 실내수영장을 공급해 타 아파트와 차별화했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중흥건설은 지난 30여년간 호남을 대표한 중흥건설사"라며 "지난해 도급순위 94위에서 77위로 17계단 올라섰는데, 올해 실적이 반영되면 내년 순위는 더욱 수직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우미건설 PF 잔액 2년만에 80% 줄여

우미건설은 올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2487억원으로, 2년만(2010년 1조3352억원)에 80% 이상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 상반기 국내 100대 건설사의 회사당 PF 평균 잔액이 7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 잔액이 35% 수준으로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된 것이다.

우미건설에 따르면 그동안 경영에 부담이 됐던 '김포 한강신도시 우미린 입주권과 계약해지 소송' 문제가 해결돼 2183억원 규모의 PF 대

출금을 완납했다. 이어 지난 9월 입주를 시작한 '영종하늘도시 우미린 1, 2차'(2967가구)도 현재 잔금 납부율이 60%를 웃도는 등 선전하면서 1460억원 규모의 PF대출금을 전액 상환했다.

분양시장에서 선전한 점도 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됐다. 우미건설은 지난 2년간 6600여 가구를 공급해 미분양물량이 200여 가구에 불과할 정도로 경기불황에도 선전했다. 또 오피스텔시장 진출과 공공사업 부문 확대 등 사업다각화를

통한 기업의 안정성도 강화됐다.

우미건설은 전체 수주잔고가 1조 8000억원에 이르고, 올해 말 현재 현금 유동성도 2000억원 수준으로 안정됐다.

장동석 우미건설 경영기획 상무는 "고품질 아파트 건설과 합리적인 분양가, 탁월한 사업지 선정 등으로 좀체된 분양시장에서도 선전했다"며 "내년에도 사업 다각화를 통해 더욱 내실있는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제2006-1

##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참깨 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침기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가족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 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보다 더욱 큰 안락해야 할 사신이 너무 부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소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도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자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문의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Han Mi 한미금거래소

# 금맥을 캐내라!

금거래 비즈니스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한미금거래소는 대한민국 최고의 귀금속 브랜드 골드스토어를 통해 혁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도약하는 회사입니다.

사업장점)

1.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
2. 전문지식이 없어도 1주 본사교육으로 창업가능
3. 자금 회전이 빠르고 안전
4. 지식경제부가 승인한 '조세특례법 106조 5항'에 의거 이익 창출
5. 지역 영업권을 확실히 보장(계약서에 명시)

가맹 문의 02)542-4611

www.hanmigold.co.kr